

Just Show Up Book Club

에임스반석교회 흰빛청년부 Kochav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읽고



-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간결하고 정돈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기독교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독교에 대해 설명하기도 적절하고, 이미 익숙해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기에 적절하다고 느꼈다. 군더더기 없는 내용 덕에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에 대해 토론할 때 좋은 매개체로 사용할 수 있었다. 오디오북으로 들으니 눈으로 읽는 것과는 다른 청각적 자극이 있어서 신선했고, 개인별 속도 편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큰 장점이었다. 몇 명이나 꾸준히 참여할 수 있을까 우려도 했는데, 걱정이 무색하게 매주 열명 이상의 인원이 참석해 주었다. 모임을 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나에게 좋은 신앙의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 매주 수요일마다 청년부가 함께 모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반 챗터 정도 오디오북으로 들은 후 이야기했다. 짧지만 알찬 분량으로 하다 보니 집중력을 잃지 않고 매 챗터를 깊이 있게 볼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다섯 가지 영역에서 명료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다. 그래서 기독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좋은 안내가 되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도전 받는 시간이 되었다. 기독교의 핵심과도 같지만 의외로 쉽게 놓치곤 하는 부분들을 짚어준다고 느꼈는데, 특히 현실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데에 있어 도전을 많이 받았다.

- Just Show Up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지난 한학기 동안 책 읽기 모임이 진행 되었다. 소그룹 운영 방식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청년들의 책 읽기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설임 없이 지원 신청을 하였다. ‘수요성경읽기모임(Kochav)’이라는 이름 하에 드라마 바이블로 모임을 시작하였다.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새롭게 파고들 부분이 많았던 요나서를 일독하였다. 성우들의 실감나는 오디오와 다양한 효과음들을 통해 더욱 생생하게 읽고 느낄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없다는 것이었다. 말그대로, show up 하기만 하면 된다는 점이 모임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요나서를 강독한 후 우리가 읽은 책은 존 스토틀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청년이라면 반드시 읽고 넘어가야 할 기본기들을 다루는 책이었기에 첫 시작으로 알맞은 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존 스토틀가 우리에게 던지는 수많은 메세지들 중 가장 깊게 남아있는 부분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거울 삼아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 또한 세상의 이치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점을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다. 이처럼 각자가 읽은 내용을 나누고, 서로의 다른 생각들을 들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들을 하나씩 쌓아 나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었다. 무엇보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각자의 시간을 내어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감사했다. 이번학기에도 진행될 수요모임에 많은 기대가 된다.

